



참새 짹짹~ 무지개 저장 100만만 161

사랑하는 딸에게

자전 거를 타고 출근하는 아침 출근길이 유난히 상쾌하구나

아파트 자전 거 보관소 옆 화단의 매화나무 한 그루는 이미 꽃을 화사하게 피었고 약한 내리막 길이라서 힘들게 페달을 밟지 않아도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자전 거가 앞으로 달린다
도로 옆 개나리들도 작고 울창한 귀여운 꽃들이 피어나기 시작하고 그 옆에 서 있는 묵련도 꽃 봉우리를 짓는다. 하천에서는 따스한 기온에 맞추어 살며시 물안개도 피어 올라간다

이런 아침 풍경이 너의 머리 속에도 그림처럼 그려지겠지
너도 네 방 베란다 창문을 열고 펼쳐진 공원의 풍경을 한번 살펴보거라
그리고 산책하러 가는 길에도 천천히 걸으면서 변화된 자연의 모습을 보고 변화된 자연의 소리를 들어보렴
그래서 자연에게 속삭여 준다면 너도 자연도 미소 화답할 것이라

사랑하는 홍비야 !

어제는 복음하는 약도 한가지 줄어든고 아빠도 기분이 좋구나

일요일 이후 집안 정리도 마무리 되어가고 또 말썽부려 더 세탁기, 청소기도 모두 다 고쳐고 할머니 방에 놓여 있는 장롱도 수리를 마쳤다

시간이 지나 가면서 하나 하나 정리되고 제자리를 찾는 모습에 너의 앞 날도 곧 머지않아 똑같은 겨울을 보게 될 것이라

너도 아빠랑 동갑이지.

그렇다면 "참새 짹짹~ 무지개 저장", 아빠가 먼저 했다 ㅋㅋㅋ

사랑하는 홍비야 !

이렇게 상쾌하고 좋은 아침을 보고 흠어진 일들도 정리되어 가고 있는데 지금 아빠의 가슴이 쿵! 쿵! 찢리는 듯 너무 아프구나
마치 '총 맞은 것처럼 정말 ♪ ♪ ~ 가슴이 너무 아파 ♪ ♪ ' 라는 노래 가사처럼.....

그 이윽는 바로 아빠 심장에 장착한 시계가 짹! 짹! 짹! 거리는 소리겠지?

약속된 시간에서 하루가 흘러 시계바늘이 가슴을 찢는 고통, 아~아~

오늘 밤에는 아빠 심장에 박혀 있는 이 시계를 해체해 주지 않으면 아빠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구나 TT TT

그럼 짹! 짹! 짹! 소리와 함께 아빠는 너의 귀요미 손을 기다리마.

너무 늦으면 안돼 ~

사랑한다, 내 딸 홍비 !

2013년 3월 12일

사랑하는 아빠가

Hello Kitty

